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2005년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이 동 윤**

I. 문제제기

현대 정치과정에 있어서 선거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자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다.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국가에서 국민은 정기적인 선거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며, 정당과 공직 후보들의 정책 대안을 선택한다.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욕구를 집약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정치과정의 중요한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통하여 정치권력의 새로운 충원과 교체를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민주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육성과제(KRF 072-BM301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필자는 본 연구를 위한 태국 현지조사와 2005년 선거참관활동 중에 많은 도움을 준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의 솀쓰리(Somsri Hananuntasuk) 양과 '민주주의개방포럼'(Open Forum for Democracy Foundation)의 씨꾼(Sakool Zuesongdham) 소장께 감사드린다.

** 서강대학교 동이연구소 상임연구원. jeby0070@unitel.co.kr

한편 지난 2005년 2월 6일 태국에서는 지역구 의석 400석과 정당명부 의석 100석 등 총 500명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제23차 하원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여당인 태국애국당(Thai Rak Thai Party)이 지역구 310석과 정당명부 67석 등 총 377석을 획득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제1당이 되었으며, 야당인 민주당(Democrat Party)은 지역구 70석과 정당명부 26석 등 총 96석을 차지하여 제2당이 되었다. 태국국가당(Char Thai Party)은 지역구 18석과 정당명부 7석 등 25석을 획득하여 제3당이 되었으며, 당초 신생정당으로 주목을 받았던 대중당(Mahachon Party)은 지역구 의석 2석만을 획득하였고, 기타 정당들은 의석 획득에 실패하여 원외정당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실상 이번 선거는 지난 2001년 1월 하원의원선거에서 전체 의석수의 반에 가까운 248석을 획득하여 4년간 집권한 탁싌(Thaksin Shinawatra)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의 집권 2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다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미가 큰 선거였다. 특히 탁싌 총리와 태국애국당은 선거 이전부터 이번 선거를 통해 4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여 보다 확고한 일당지배체제를 형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BP* 2003/04/28; *The Nation* 2003/10/11), 이에 따라 이번 선거결과는 탁싌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과 통치 스타일에 대한 야당 및 일부 언론, 시민단체들의 비판과 탁싌 정부의 집권 1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¹⁾ 다른 한편으로

1) 탁싌 총리와 태국애국당에 대한 비판은 정부가 정치적으로 탁싌 총리 개인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탁싌화(Thaksinization)’ 혹은 ‘민주적 권위주의(democratic authoritarianism)’에 대한 논쟁(Chookiat 2004: 257-66; McCargo et al. 2005; Thitinan 2003: 277-90)과 탁싌 총리의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 통치 스타일 자체가 국가정책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우려(Bidhya 2004: 7-36), 그리고 경제 부문에 있어서 국가 중심적 개발주의와 대중융합주의를 표방하는 이른바 ‘탁씨노믹스(Thaksinomics)’에 대한 비판(Pran 2003; Pasuk et al. 2004: 99-103; Baker 2005: 107-37)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지난 2004년 1월부터 확산된 남부 이슬람지역의 폭력 사태와 탁썬 정부의 강경진압, 그리고 2004년 12월 남부 해안지역의 지진해일(tsunami) 피해에 따른 남부 지역주의의 향방도 이번 선거를 통해 표출되었다.²⁾ 선거 이전부터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혹은 새로운 대안 창출이나를 놓고 고심하던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또 다른 관심거리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2005년 2월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으며,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이번 선거를 통하여 태국의 선거과정은 어떤 변화와 지속성을 표출하였으며, 이것은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 및 공고화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의문점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태국의 선거과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2005년 2월 실시된 하원의원선거를 중심으로 태국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다차원적인 변화와 지속성 요인들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태국의 2005년 선거과정을 제도적 수준, 정당 및 후보자 수준, 유권자 수준 등으로 나누어 선거과정의 제반 특징들을 분석함으로써 태국의 선거과정과 민주주의 공고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II. 기존 논의의 검토: 태국의 선거와 민주주의

흔히 ‘민주주의’는 다원적 정의가 가능하지만, 통상 “일반 시민들에 의해 통치자가 그들의 통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유

2) 2004년 1월부터 확산된 남부 무슬림 지역의 분리·독립운동 움직임과 연쇄적인 폭력 사태, 그리고 이에 대한 탁썬 정부의 강경진압은 2004년 10월 발생한 ‘딱바이(Tak Bai)’ 사건을 기점으로 탁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가중시켰으며, 2004년 12월 말 발생한 남부 해안지역의 지진해일 피해 또한 선거과정에서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다.

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가 경쟁과 협력을 통해 정치활동을 수행하는 통치체제”(Schmitter et al. 1993: 40)를 의미한다. 달(Dahl 1971: 3-7)은 그의 ‘다두제(polyarchy)’ 개념을 통하여 ‘민주주의’는 “정부 공직을 획득함에 있어서 폭력의 사용을 배제하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개인 또는 조직화된 집단들 사이의 의미 있고 광범위한 경쟁이 보장되고,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규칙적이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주요한 사회집단이 배제되지 않을 만큼 포괄적인 수준으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표현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정치적· 시민적 자유가 제약받지 않는 상태”라고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 국가의 정치체제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민주화과정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정치체도나 과정이 자동적으로 민주적인 법·질서를 회복하고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민주화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정치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불안을 유발한다면, 이것은 다시금 권위주의체제로 회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화를 통해 수립된 새로운 민주주의체제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형성된 민주주의가 오래도록 지속되어야 하며, 권위주의로의 회귀나 민주주의를 거스르려는 흐름이 방지되어야 한다”(Schedler 1998: 91). 특히 새로운 민주주의체제가 오래도록 지속되기 위해서는 민주적 정치체도와 과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제도화과정을 필요로 하며, 이것은 필연적으로 선거나 정당정치의 본원적인 기능과 연계되어 있다(Linz et al. 1996: 65).

일반적으로 선거과정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선거제도와 행태,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행위자들 사이의 제반 행위와 역학관계, 그리고 선거문화 등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흔히 선거 연구는 제도론적 차원에서 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등

선거과정의 제도적 환경과 구조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의해 정당 및 후보자,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에 대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진행되기도 한다. 또한 선거연구는 인지심리학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및 투표요인 등을 살펴보기 위한 계량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선거과정에서 행위자들 사이의 다양한 역학관계와 선거결과의 특징에 대한 경험적 고찰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 국가의 선거과정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구조적 환경요인을 가늠하는 제도적 수준, 선거의 행위주체들을 분석하는 정당 및 후보자 수준과 유권자 수준의 연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거의 구조적 환경을 구성하는 선거제도와 정치구조, 선거과정에서 전개되는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과 이에 따른 상호 역학관계, 그리고 유권자들의 정치의식 및 투표참여 수준과 투표행태 등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의 제반 특징들을 파악케 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우선 한 국가의 선거제도와 환경은 선거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Farrell 1997; Katz 1980). 선거제도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기본적인 구성요소일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공정성과 경쟁성을 보장해 주는 환경요인을 제공한다. 한 국가의 선거과정이 민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에 있어서 각 개인 및 정당의 선거참여와 경쟁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선거제도의 배열과 조합은 선거과정 및 결과와 연계되어 불가분의 필요·충분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제도적 특징들은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선거업무를 담당하는 선거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군·경 및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등도 선거과정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표 1〉 태국의 역대 하원의원선거 현황

| 차수 | 선거방식 | 선거일 | 의석수 | 투표율 (%) |
|----|--------------|--------------|-----|---------|
| 1 | 간접 (임명+간선) | 1933. 11. 15 | 78 | 41.5 |
| 2 | 소선 (단순다수) | 1937. 11. 07 | 91 | 40.2 |
| 3 | 소선 (단순다수) | 1938. 11. 12 | 91 | 35.1 |
| 4 | 소선 (단순다수) | 1946. 01. 06 | 96 | 32.5 |
| 5 | 소선 (단순다수) | 1946. 08. 05 | 82 | 34.9 |
| 6 | 중선 (인구기준) | 1948. 01. 29 | 99 | 29.5 |
| 7 | 중선 (인구기준) | 1949. 06. 05 | 21 | 24.7 |
| 8 | 중선 (인구기준) | 1952. 02. 26 | 124 | 39.0 |
| 9 | 중선 (인구기준) | 1957. 02. 26 | 160 | 57.5 |
| 10 | 중선 (인구기준) | 1957. 12. 15 | 160 | 44.1 |
| 11 | 중선 (인구기준) | 1969. 02. 10 | 219 | 49.2 |
| 12 | 혼합 (소선+중선) | 1975. 01. 26 | 269 | 47.2 |
| 13 | 혼합 (소선+중선) | 1976. 04. 04 | 279 | 44.0 |
| 14 | 혼합 (소선+중선) | 1979. 04. 22 | 301 | 43.9 |
| 15 | 혼합 (소선+중선) | 1983. 04. 18 | 324 | 50.8 |
| 16 | 혼합 (소선+중선) | 1986. 02. 27 | 347 | 61.4 |
| 17 | 혼합 (소선+중선) | 1988. 02. 24 | 357 | 63.6 |
| 18 | 혼합 (소선+중선) | 1992. 03. 22 | 360 | 59.4 |
| 19 | 혼합 (소선+중선) | 1992. 09. 13 | 360 | 61.6 |
| 20 | 혼합 (소선+중선) | 1995. 07. 02 | 391 | 62.0 |
| 21 | 혼합 (소선+중선) | 1996. 11. 17 | 393 | 62.4 |
| 22 | 혼합 (소선+정당명부) | 2001. 01. 06 | 500 | 69.9 |
| 23 | 혼합 (소선+정당명부) | 2005. 02. 06 | 500 | 72.5 |

태국의 선거제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32년 궁정쿠데타로 입헌군주제를 채택한 군부 및 관료세력이 1933년 11월 15일 최초의 의회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 선거제도는 전체 의원들 중 절반인 78명을 국왕이 임명하고, 나머지 절반인 78명도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비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Bajunid 1989: 2). 이후 1937년 제 2차 의회선거부터 직접선거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이 시기의 선거과정은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마땅한 정당이 허가되지 않은 가운데 소속 정당이 없는 후보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체계적인 선거와 정당정치가 이루진 것은 아니다. 1946년 의회선거부터 정당 설립이 보장됨으로써 태국의 선거과정은 보다 경쟁적인 선거체계를 확립할 수 있었으나, 1932년 이래 17 차례에 걸쳐 발생한 연이은 군부쿠데타는 ‘태국 정치의 악순환(vicious cycle of Thai politics)’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제도는 단지 쿠데타 세력이나 군부정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었을 뿐이다(Chai-anan 1982: 1-2). 물론 1973년부터 1976년 사이 제1차 민주화 시기와 1980년대 썬렘(Prem Tinsulanonda) 정권의 준민주주의(semi-democracy) 시기를 거치면서 태국의 선거과정은 점차 민주적인 선거체계를 확립하게 되었으나,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제도가 확립된 것은 1992년 발생한 제2차 민주화 이후부터이다.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1997년 10월 개정된 새로운 헌법은 태국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는데(Paichart et al. 1997: 1), 이 헌법은 그 동안 임명제로 운영되었던 상원의원의 직선제 선출을 규정하고, 하원의원의 경우에도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의원 400명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선출하되 정당명부제의 경우 전체 득표율의 5% 이상을 획득한 정당만이 의석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정치의 강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1997년 헌법은 독립된 선거위원회(ECT: Election Commission of Thailand)의 설치를 보장하고 그 권한과 기능

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과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충시켰으며, 1998년에는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정당의 자격요건 강화와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에 대한 세부규정이 보장되는 등 보다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기틀이 확립되었다(Callahan 2000: 165; 윤진표 2001: 93).

한편 선거행위자로서 정당 및 공직 후보자들에 관한 기존 연구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사이에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며, 이들은 선거과정과 결과에도 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Rae 1971; Katz 1980). 실증적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양당제에 입각한 정당체계보다 다당제를 형성하고 있는 정당체계에서 선거과정은 보다 경쟁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념과 정강정책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당제 국가보다 뚜렷한 정책이나 이념적 차이 없이 군소정당들이 난립하는 다당제 국가에서 선거과정과 선거운동은 보다 치열하게 전개된다. 선거운동 방식은 각 국가들의 제도적 차이와 문화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보편적으로 일반화될 수는 없으나, 각 국가의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에 따라 그 전개방식과 양상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태국의 선거과정에서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 및 선거행태와 관련하여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선거비용과 매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금권선거 현상이다(Arghiros 1995; Callahan et al. 1996: 376-92; Ockey 2003: 671-2). 1970년대 초반부터 일부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방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매표행위는 1980년대부터 정당과 후보자들의 선거 승리를 위한 최고의 선거운동 전략으로 일반화되었으며, 특히 1992년 민주화 이후 보다 경쟁적인 선거체계가 형성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Murry 1996b: 368-90; Nelson 1998: ch 5). 주로 경제적으로 낙후된 북부 산간지역이나 동북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매표행위는 후원자-추종자 관계(patron-client relation)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정치문화와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정치지도자 중심의 복잡한 정

당체계 및 정당구조, 그리고 태국 지방주민들의 빈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선거과정에서 금권·타락선거를 촉발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Anusorn 1999: 12).

선거과정의 또 다른 행위자로서 유권자 수준에 대한 연구는 민주적 선거과정의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율은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지표이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또한 선거과정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Norris 2004). 일반적으로 한국의 선거 수준은 유권자들의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율이 높을수록 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며, 유권자들의 투표행태가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보다 정당·정책 중심적 투표행태를 나타낼수록 선거과정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Harrop et al. 1987: 145-57).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그 국가의 정당정치 수준과도 깊은 관계가 있어 정책적·이념적 차이가 뚜렷한 정당들의 정당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제도화될수록 유권자들의 정당·정책 중심적 투표행태가 심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기존 연구에 있어서 유권자 수준을 통해 나타나는 태국 선거과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유권자들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심, 그리고 전통적인 후원자-추종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이다(Suchit 1988: 56-7; Bajunid 1989: 20; 이병도 2000: 273). 2001년 1월 실시된 제22차 하원의원선거 이전까지 역대 선거과정에서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은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 내외를 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태국의 정치문화가 정치적 결양을 미덕으로 하고, 그 동안 지속되어 온 군부쿠데타와 정치적 불안이 선거를 통한 민의의 수렴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선거로부터 무관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흔히 태국의 투표참여율은 도시보다 지방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후원자-추종자 관계와 매표행위를 통

한 유권자들의 선거동원이 도시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Suchit 1996a: 82).

이와 더불어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정당의 이념이나 정책보다 후보자 개인의 인물됨을 중심으로 한 투표행태를 나타내고 있다. 대중적 지지기반이 빈약하고 뚜렷한 이념 및 정강정책이 미약한 정당체계와 유권자들의 낮은 정치의식 등은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정책·정당이 아닌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로 발전시켰다(Kanok 1993: 62-3; 이병도 2000: 267). 사실상 태국의 정당은 대중적 지지기반이나 사회적 욕구에 의해 태동되었다기보다는 집권자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외생적 설립과정을 거쳤으며, 후원자-추종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치엘리트 중심의 파벌집단을 형성하여 왔다. 각 정당의 정치지도자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후보 공천이나 정치자금, 공직 보장 등과 같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정당을 유지하였으며,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과 후보자들 또한 기부 및 대표행위와 사회·경제적 후원 관계 등 편법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였다(Suchit 1988: 67-72; Kanok 1993: 134; Murashima 1987: 363-84; Suchit 1996b: 191-5).

최근 태국의 선거결과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특징 중 하나는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성향이다(Murry 1996a: 118, 251-2; Suchit 1996a: 85-91; King et al. 1996: 112-3; Surin et al. 1997: 144-5). 특히 지난 1992년 민주화 이후 급격하게 확산된 태국 정당의 지역화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정지역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지역주의 양상으로 발전함으로써 정치·사회적 문제를 양산해낼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물론 그 이전의 선거과정에서도 특정지역에서 일부 정당들의 강세 현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선거과정의 경쟁성이 강화된 1992년 9월 선거 이후부터 보다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정당의 지역화 현상은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충성심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

과가 있으나, 문제는 각 정당들 사이의 정치적 이념이나 특별한 정책적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역주의 감정에 치우친 지역정당의 출현이 정치과정의 혼란과 지역 이기주의를 유발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태국 남부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 및 정당의 지역화 현상은 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이동운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앞서 제기된 선거과정의 세 가지 분석 수준과 더불어 2005년 2월 태국 하원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제반 특징들을 포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기존 논의에서 지적되고 있는 태국 선거과정의 문제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상 태국의 선거과정을 연구한 기존 논의들은 그 동안 선거의 긍정적인 측면들보다 부정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선거과정은 1992년 민주화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개선과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는 바, 본 연구는 2005년 하원의원선거의 전개과정을 제도적 수준과 정당 및 후보자 수준, 유권자 수준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존 논의들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태국의 선거과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지속되어 왔는가를 경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Ⅲ.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전개과정

선거과정의 제도적 수준에서 2005년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는 지난 1997년 개정된 새로운 헌법과 1998년 개정된 선거법·정당법에 의해 치러진 두 번째 하원의원선거이다. 선거제도의 기본적인 골격이 변화되어 선거 준비 및 홍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001년 선거와 달리 이번 선거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거 준비가 진행되었으며,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또한 이전 선거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2001년 선거와 같이 이번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 입각하여 총 400개의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정당명부제 투표를 통해 최소 5% 진입장벽을 통과한 정당들이 득표율 비례에 따라 100석의 의석을 나누어 갖는 ‘1인2투표제’가 시행되었다.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투표의무제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비용과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보다 세부적인 사항까지 강화되었다.³⁾

선거비용 및 선거운동 제한과 관련하여 선거위원회는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개인과 공공기관, 종교사원 등에 대한 각종 기부행위를 금지시켰으며, 선거기간 동안 T셔츠나 모자 제공, 선거결과와 관련한 보상 언급 등도 금지시켰다(BP 2004/10/07).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은 최대 150만 바트로 그 상한선이 최종 결정되었으며,⁴⁾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위원회 등록 이전까지 정당 및 후보 지지자들에 의해 추진되었던 가두행진이나 축하 공연도 금지되었다(BP 2005/01/07). 그 밖에도 신종 매표행위나 선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 내부에서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The Nation 2005/02/05), 지난 2001년 선거의 경우 선거에 참여한 총 43개 정당들 중 11개 정당이 단지 1명의 후보만을 정당명부 후보로 등록시킨 점을 고려하여 강제규정은 아니나

-
- 3) 태국의 선거과정에서 선거비용의 제한은 지난 1979년 선거법부터 적용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8년 개정된 선거법은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 과거 선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선거비용의 규제 및 조사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으며, 정당간 협의에 의해 선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선거비용의 제한 및 조사활동을 펼치도록 규정하고 있다(Chaiwat 2000: 26-7; 이병도 2004: 68).
- 4) 참고로 지난 2001년 하원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 제한은 선거구 크기에 따라 150만 바트□170만 바트□200만 바트로 차등 규제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이동운 2001: 293). 그러나 선거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 각 선거구의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이 선거비용 제한선의 60% 정도였음을 감안하여 이번 선거부터 전체 선거구의 선거비용 제한선을 최초 100만 바트로 제시한 바 있다.

협조사항으로 정당명부를 등록하는 모든 정당들은 최소 5명 이상의 정당 명부 후보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BP* 2005/01/06).

선거일 결정과 관련하여 최초 선거위원회는 2월 13일을 잠정적인 선거일로 결정하였으나, 정부의 공식적인 임기가 1월 5일로 끝나고 2월 9일이 중국인들의 신년행사인 구정(舊正)인 관계로 금권선거가 우려된다는 주장에 따라 2월 6일을 최종 선거일로 결정하였다(*BP* 2004/12/09).⁵⁾ 또한 2004년 12월 26일의 지진해일 피해에 따라 남부 6개 지역에 대한 선거일 연기가 요구되었으나, 선거위원회는 2월 6일까지 선거준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선거를 그대로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다(*The Nation* 2005/01/04).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월 7일부터 9일까지 각 정당의 정당명부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10일부터 14일 사이에는 지역구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졌다. 또한 1월 29일과 30일 양일간 부재자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각 해외공관별로 해외거주자 투표도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는 일부 학자와 시민단체, 야당 후보들에 의해 선거위원회의 편파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선거위원회가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금권선거를 차단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언론의 편파적 보도를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함으로써 ‘종이호랑이’(paper tiger)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그것이다(*BP* 2005/02/03). 실질적으로 1월 29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59%는 “정부와 여당이 선거위원회의 업무에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을 하였으며(*The Nation* 2005/01/30), 다수의 야당 후보들은 선거위원회가 자신들의 이익의 제기나 불법선거운동 신고를 태만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 하기도 하였다.⁶⁾ 언론의 편파성 문제와 관련하여 채널 3, 5, 7, 9, iTV 등 5

5) 태국의 하원의원선거는 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임기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의회 해산의 경우 해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6) 이 문제에 대하여 민주당의 선거운동본부 담당자는 “태국의 선거위원회는 비록 1997년

〈표 2〉 TV 저녁뉴스 방송의 정당별 빈도수와 시간 (2005년 1월 26일~30일)

| | 빈도수 (회) | 시간 (분) |
|----------------|-------------|----------------|
| 태국애국당 (TRT) | 220 (36.8%) | 303:44 (29.9%) |
| 민주당 (DP) | 160 (26.8%) | 170:15 (16.8%) |
| 태국국가당 (CTP) | 102 (17.1%) | 133:05 (13.1%) |
| 대중당 (Mahachon) | 96 (16.1%) | 175:49 (17.3%) |
| 기 타 (Others) | 20 (3.3%) | 232:20 (22.9%) |

출처: *The Nation* 2005/02/02.

개TV 방송사의 저녁뉴스 내용을 분석한 한 조사기관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정당들의 선거운동 동정에 대한 보도가 TV 저녁뉴스의 빈도수와 시간 면에서 태국애국당에게 보다 유리하도록 편성되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⁷⁾

이번 선거기간 동안 선거위원회는 정부 관료들의 선거 중립을 엄중히 경고하였으며,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여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다수 후보자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바 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각 관료로서 농업부 차관인 네윈(Newin Chidchob)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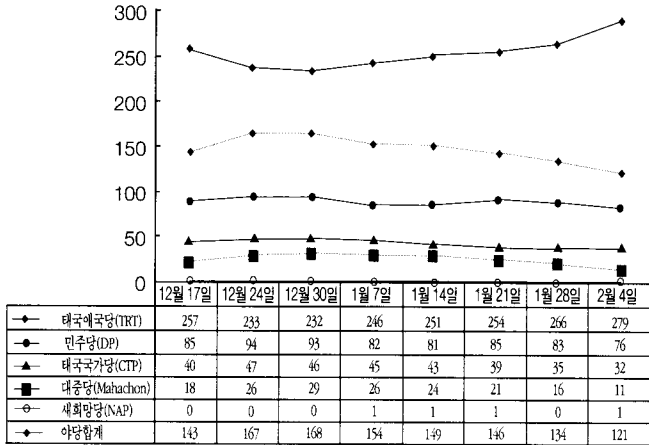
헌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집권 여당이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다. 특히 지방 선거위원회의 경우 매표행위나 금권선거에 대한 적발 및 규제활동이 매우 미약하며,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경찰 역시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Buranaj Samutharaks, Kiat Sitheeamorn 면담 (면담일: 2005. 2. 2).

- 7) 이에 대하여 탁센 총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iTV의 한 선거방송 담당자는 “총리나 장관 등 정부 관료와 관련된 보도를 하다보니 여당인 태국애국당에 대한 보도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다른 정당들에 대한 선거운동 보도도 되도록 치우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다. 또한 군소정당의 경우 보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iTV 선거방송 담당자 면담 (면담일: 2003. 2. 3).
- 8) 태국의 경우 하원의원이 되기 위해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위원회는 방콕 던무엥(Don Muang) 선거구에서 출마한 태국애국당의 카룬(Karun Hosakul) 후보가 대학 졸업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였다(*The Nation* 2005/02/04).

남부 송클라(Songkhla) 지역을 방문하여 “만약 이 지역에서 태국애국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모든 마을마다 각각 10만 바트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야당의 강력한 비난과 고소·고발이 초래되었으며(BP 2005/01/19), 그밖에도 정부 관료나 공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크고 작은 논란이 지속되었다. 선거일 이후 2월 12일까지 선거위원회에는 297건의 선거 관련 불만사례와 고발이 접수되었으며, 선거위원회는 25일까지 ‘레드 카드’와 ‘옐로우 카드’ 심사를 마치고 일차로 당선자가 발표된 이후 불법적인 사실이 입증된 선거구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당 및 후보자 수준에서 이번 선거는 총 25개 정당의 정당명부 후보 582명과 지역구 후보 1,707명 등 2,289명의 후보자들이 선거위원회의 등록을 마치고 선거경쟁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정당명부제에 따른 후보자 100명의 명단과 전체 400개 선거구에 과반수 이상의 후보자를 등록시킨 정당은 태국애국당과 민주당,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 일부 정당에 불과하였다. 정당명부 없이 5명 미만의 지역구 후보자만을 등록시킨 정당도 5개 정당이나 되었고, 정당명부 후보 5명만을 선거위원회에 등록시키고 지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도 2개 정당이나 되었다(BP 2005/02/03). 실질적으로 일부 군소정당들은 일부 거대정당이나 유력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배제된 자들이 함께 모여 급조된 경우도 있었으며, 거대정당과 유사한 정당 명칭을 내세워 정당명부제를 통한 당선과 의회 진출을 꾀하는 정당도 있었다.

<그림 1>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여론조사 결과 추이



출처: KT 2005/01/14; 2005/01/31; 2005/02/04.

그러나 선거과정은 이미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기간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태국에국당의 독주와 압도적인 승리가 예견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의 선거운동은 태국에국당의 독주에 대한 민주당,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 주요 야당들의 연합과 견제 형태로 진행되었다. 실질적으로 탁싨 정부와 태국에국당은 2003년 말까지 합당과 정당연합을 통해 전체 의석 500석 중 40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한 바 있으며,⁹⁾ 이번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하였다. 반면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등 주요 야당들은 2003년 4월 추안(Chuan Leekpai) 전 총리가 민주당 총재직을 물러난 것을 필두로 당 내부의 분열

9) 2001년 하원의원선거 이후 태국에국당과 탁싨 정부는 정의자유당(Seritham Party)과의 합당에 뒤이어 새희망당(NAP: New Aspiration Party)과 통합한 이후, 국가개발당(Char Pattana party), 태국국가당 등과도 연립함으로써 의회 내에서 70%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바 있다(Thitinan 2003: 279; Mutebi 2003: 102). 그러나 이후 국가개발당, 태국국가당 등은 태국에국당과의 내부 알력과 공직 배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연립정부를 탈퇴하고 다시 야당의 길을 걷게 되었다.

과 리더십 교체 등으로 탁싨 총리와 태국애국당의 독주를 견제할 만한 능력과 국민적 신뢰를 형성하지 못하였다(Chookiat 2004: 259-60). 차기 총리에 대한 인물평에 있어서도 탁싨 총리는 이미 2001년 선거 이후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국정운영 능력을 검증받은 반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의 반얏(Banyat Bantadtan) 총재는 남부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별다른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⁰⁾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야당들이 제기한 가장 큰 이슈는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 가능성에 대한 ‘견제와 균형’ 논리였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에서 태국애국당의 독주와 탁싨 총리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 201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으며, “201석 이상 뽑아주세요”(luaktang hai theong 201 si-yang)라는 구호와 함께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태국국가당의 반한(Baharn Silapa-archa) 총재 역시 “태국국가당만이 태국애국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고 주장하였으며(The Nation 2005/02/01), 대중당의 아넥(Anek Laothamatas) 총재는 태국애국당이 북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자신 또한 북부 ‘람뽕(Lampang)의 아들’임을 내세워 북부지역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하였다(BP 2005/02/02).

10)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반얏 총재는 “국민들로부터 모든 사안에 대해 너무 느리게 반응한다는 불만을 사고 있으며, 당 내부에서조차 확고한 지도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반얏 총재는 “남부 특유의 사투리로 인해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지지율을 높일 수는 있으나, 방콕의 유권자들을 비롯하여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가는 어렵다”는 것이 선거과정을 지켜본 선거전문가들의 평가이다. Chaiwat Khamchoo 면담 (면담일: 2005. 1. 31); Somsri Hananuntasuk 면담 (면담일: 2005. 2. 3). 이에 따라 로얄플라자(Royal Plaza)에서 진행된 민주당의 최종 선거유세에서도 반얏 총재의 연설보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아피셋(Abhisit Vejjajiva) 부총재의 연설이 청중들로부터 더 큰 환호를 받았다. 민주당 로얄플라자 최종 선거유세 참관 (참관일: 2005. 2. 4).

이에 대하여 태국애국당은 “일당지배가 무엇이 나쁜가? 태국애국당은 이번 선거에서야말로 말레이시아의 통일말레이민족조직(UMNO: United Malaysian National Organization)과 같이 전국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 강력한 통치력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선전하였으며 (BP 2005/01/16), 실질적으로 탁싨 총리를 비롯한 내각 관료들도 공공연하게 “경제발전을 위해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와 같은 정당체계를 본받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hitinan 2003: 288; Ockey 2003: 663-4). 특히 탁싨 총리는 2005년 2월 4일 싸남루앙(Sanam Luang)에서 열린 태국애국당의 최종 선거유세에 참석하여 “야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말을 통해 마치 모든 일당지배가 비민주적인 것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정당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일당지배가 왜 비민주적인가? 태국애국당은 이번 선거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어 국민들을 위한 강력한 단독정부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¹¹⁾

주요 정당의 정책 대결과 선거공약은 지난 2001년의 선거과정과 비교하여 오히려 퇴보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5년 1월 20일 탐마삿대학교(Thammasat University)와 일부 언론사 주최로 개최된 주요 정당지도자 정책토론회는 태국애국당의 불참 통보로 토론회 자체가 무산되었으며, 2월 3일 탐마삿대학교 정치학부와 선거감시재단(Poll Watch Foundation) 주최로 개최된 정당 정책토론회 역시 태국애국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 3개 정당 대표들만이 참석하여 정책토론을 펼쳤다. 그러나 각 정당들이 제시한 정치·경제·사회 부문의 각종 정책공약들은 대부분 선언적 의미만을 지니고 있을 뿐, 청중들로부터 세부적인 실천방안이 빈약하고 정부의 예산 부문을 간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¹²⁾ 선거기간 동안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 주요 야당들은 태

11) 태국애국당 싸남루앙 최종 선거유세 참관 (참관일: 2005. 2. 4).

12)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대다수의 청중들과 토론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은 “각 정당들 사

국애국당의 정책공약이 국가와 국민들의 부채만 증가시킬 뿐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당들 또한 마찬가지로 자신들만의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나 차별성을 제시하지 못했다. 각 정당들은 태국애국당의 정책공약이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면서도 그들 역시 태국애국당의 정책을 모방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BP 2005/01/23).

남부 이슬람지역의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정당들의 정책은 태국애국당과 야당들 사이의 이견이 존재하여 야당들은 태국애국당의 강경진압정책을 비판하였으며, 남부 문제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과 근본적인 치유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남부지역에서 강력한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공약의 제시나 이와 관련된 언급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그것은 태국애국당에 의하여 그들의 입장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¹³⁾ 오히려 태국애국당의 경우 남부지역에서 의석수를 늘이기 위해 민주당보다도 적극적인 정책 제시를 추진하였으며, 이것은 탁싨 총리 및 내각 관료들의 남부지역 방문과 공식적인 정부지원 약속 등을 통해 더욱 가시화되었다. 특히 남부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와 지원을 명목으로 여당인 태국애국당이 각종 정책공약을 제시하는 데 반하여 민주당의 경우 폭력 사태가 유발된 일부 남부지역에서 주둔군 당국에 의하여 치안상태를 이유로 야간 선거유세를 제약받게 됨으로써 그들의 선거운동과 지지기반이 태국애국당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의 뚜렷한 정책적 차이점을 구분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빈약하고 선언적 의미의 정책에 불과하다”고 논평하였다. 탐마삿대학교 정당 정책토론회 참관 (참관일: 2005. 2. 3).

13) Buranaj Samutharaks, Kiat Sitheeamorn 면담 (면담일: 2005. 2. 2).

〈표 3〉 태국의 2005년 하원의원선거 정당별 정책 공약

| 정책 구분 | 태국애국당 (TRT) | 민주당 (DP) | 태국국가당 (CTP) | 대중당 (MP) |
|-------|--|--|--|--|
| 빈민 정책 | ·전문기술진으로 구성된 “빈곤구제 이동 상담소” 운영 ·빈민 대상 재정 지원 및 교육비 제공 확충 | ·저소득노령자들을 위한 국영 임대주택 운영방법 개선 ·달 1,000바트□이내에서 무상 보건의료 혜택 | ·국영 임대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 노령자에게 월 500바트□ 지급 ·빈민의료·보건제도를 무상으로 전환 ·국민 부채 해결 | ·태국애국당의 30바트□ “의료지원제도” 폐지 ·빈민 대상 무상 의료 제도 추진 ·부채로부터의 해방 |
| 지방 정책 | ·지역공동체의 자체 해결능력과 기회 강화 | - | ·지역공동체의 공공참여 장려 ·지방행정 강화 | ·지방 분권화를 위해 권력 분산 ·중앙정부예산의 35%를 지방으로 이전 ·4개 지방도시에 대도시 행정체제 추진 |
| 농촌 정책 | ·“젓소대여제도”를 추진하여 농기수입 증대 ·농가지원금 규모를 규모별로 확대조정 ·농가 우물 개발사업 (본인부담 2,500바트□) |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4개년 계획 추진 (농업기술 지원 및 개선) ·농가부채 제한적 탕감 확대 | ·농업은행이나 농협을 통한 농가부채 탕감 모색(5만 바트□이하 대출자) ·쌀값을 농민에게 지불 | - |
| 교육 정책 | ·졸업 이후 취업까지 대학등록금 연기 ·담배주류세 인상을 통한 대학교 보건제도 개선 | ·유치원으로부터 초등학교까지 무상 교육 ·취업과 소득 증대를 위한 직업교육 투자 ·대학 정원의 20% 증원, 국립대학 등록금 50% 인하 | ·12세 이하 초등교육, 중등교육 무상 제공 | ·정부 연구소를 이용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초등교육, 중등교육 무상 제공 |
| 기타 정책 | ·장기계획에 따라 1조 바트를 투자하여 방콕 대중교통체계 개선 ·국민들의 안전과 기회 보장 | - | ·신뢰 회복과 균형사회 수립 ·사회정의 실현 ·부패와의 전쟁 추진 ·마약과의 전쟁 추진 | ·정책결정에 소수집단의 참여 장려 ·총리에 대한 의회 불신임제도 기준을 현 200명에서 100명으로 개정 ·부패 척결 ·새로운 형태의 독재에 반대 |

출처: The Nation 2005/02/01; BP 2005/02/03; KT 2005/02/03.

이번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허점이 그대로 들어나는 정책토론회나 논쟁보다는 선거유세를 통해 직접적으로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운동 방식을 선호하였다(*The Nation* 2005/01/29). 실질적으로 2001년 선거 당시 심각한 정책 논쟁보다 지방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대중융합적 정책들을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선전하는 태국 애국당의 선거전략은 비록 지식인과 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과정에서 많은 효과를 본 것이 사실이다(Pasuk et al. 2004: 8). 이에 따라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대다수 정당들은 여당이나 야당을 불문하고 심각한 정책 논쟁을 회피하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정당지도자나 유명 후보자들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전개하였다. 언론에 의하여 이른바 ‘대중융합주의 전쟁(populist battle)’으로 명명된 이번 선거기간 동안 각 정당들은 뚜렷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기보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자극적인 문구와 구호로 선거운동을 일관하였다(*BP* 2005/02/03).

이러한 선거운동 방식은 각 정당의 선거 전략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쳐 주로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자기 정당의 정책공약을 선전하기 보다는 타 정당의 실책이나 정책공약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였으며, 특히 일반 유권자들의 냉담한 반응과 달리 선거기간이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선거법 위반이나 인신공격에 따른 명예훼손 등 상호 고소·고발사건이 증가하였다(*BP* 2005/01/27; *The Nation* 2005/01/29). 과거 선거와 달리 선거법에 의한 선거비용 규제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적발이 강화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두드러진 대표행위와 금권선거 사례들이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지방 유력자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여 직장 혹은 면(tambon) 단위 유권자들의 표를 단체로 매표하는 새로운 방식이 보고되기도 하였다.¹⁴⁾ 또한 모바일 폰이나 카메라 폰을 이용한 첨단 선거운동 방식도 등장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전송이 확산되었으며, 유권자들의 매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가 이용된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BP* 2005/01/14; *The Nation* 2005/01/31).

유권자 수준에서 이번 선거는 전체 유권자의 72.5%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역대 선거들 중 가장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록하였다. 방콕 등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의 투표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은 일부 남부지역의 투표율이 높게 나타났다(*BP* 2005/02/09). 이러한 투표율 결과는 선거기간 동안 외형상 비교적 냉담한 반응과 달리 태국애국당의 독주에 대한 야당들의 ‘견제와 균형’ 논리가 어느 정도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투표 의무제 실시와 아직도 지방과 농촌지역에서 정당 및 후보자들에 의한 유권자들의 조직적 동원이 지속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산간지역 등 지방 곳곳에서는 투표소로의 이동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픽업트럭이나 다른 운송수단을 동원한 유권자 수송이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정당 및 후보자들의 유권자 동원과 매표행위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⁵⁾

이번 선거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은 P-Net(People's Network for Election), 선거감시단(Poll Watch)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선거감시 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선거과정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선거기간 이전부터 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탁신 총리와 태국애국당에 의한 일당지배가 필리핀의 마르코스(Ferdinand E. Marcos) 독재보다 더 나쁜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태국애국당이 말레이시아의 통일말레이민족조직이나 싱가포르의 인민행

14) Sakool Zuesongdham 면담 (면담일: 2005. 2. 1).

15) Somsri Hananuntasuk 면담 (면담일: 2005. 2. 9).

동당(People's Action Party)과 견주어 비교되기도 하였다(BP 2005/01/15). 특히 일부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의 선거운동 구호를 그대로 인용하여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저지하기 위하여 야당에게 최소 201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BP 2005/01/20), 태국애국당의 실책이나 문제점을 담은 CD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과 퍼레이드를 전개하기도 하였다(The Nation 2005/01/29).

한편 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과거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1월 29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무엇에 의해 선거결과가 결정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73%의 응답자는 후보자의 개인적 인기도에 따라 선거결과가 결정된다고 응답하였으며(The Nation 2005/01/30), 선거 이후 전국 8,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후보자와의 연관관계 때문에 투표를 결정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정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단지 30%에 불과하였다(BP 2005/02/26).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은 지난 2001년 선거와 달리 정당 간 뚜렷한 정책경쟁이나 논쟁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운데 정당지도자나 지역구 후보를 중심으로 투표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결과는 수많은 여론조사기관의 예측을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로 표출되었다. 물론 선거일 이전부터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태국애국당의 압도적 승리와 일당지배가 예견되었으나, 실질적인 선거결과는 여론조사기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태국애국당이 지역구 대표의석 310석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의석 67석으로 총 377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탁싨 총리와 태국애국당은 선거 이전부터 공언하였듯이 태국애국당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주당과 태국국가당, 대중당 등은 또다시 야당의 길을 걷게 되었

〈표 4〉 태국의 2001년과 2005년 하원의원선거 결과 비교

단위: 명 (%)

| 정 당 명 | 2001년 1월 6일 | | | 2005년 2월 6일 | | |
|------------|-------------|------------|-----------|-------------|------------|-----------|
| | 지역구 의석 | 정당명부 의석 | 합 계 | 지역구 의석 | 정당명부 의석 | 합 계 |
| 태국애국당(TRT) | 200(50.0) | 48(48.0) | 248(49.6) | 310(77.5) | 67(67.0) | 377(75.4) |
| 민주당 (DP) | 97(24.3) | 31(31.0) | 128(25.6) | 70(17.5) | 26(26.0) | 96(19.2) |
| 태국국가당(CTP) | 35(8.8) | 6(6.0) | 41(8.2) | 18(4.5) | 7(7.0) | 25(5.0) |
| 사회당당(NAP) | 28(7.0) | 8(8.0) | 36(7.2) | - | - | - |
| 국가개발당(CPP) | 22(5.5) | 7(7.0) | 29(5.8) | - | - | - |
| 정의자유당(SP) | 14(3.5) | - | 14(2.8) | - | - | - |
| 인민당(RP) | 2(0.5) | - | 2(0.4) | - | - | - |
| 태국조국당(TTP) | 1(0.3) | - | 1(0.2) | - | - | - |
| 사회행동당(SAP) | 1(0.3) | - | 1(0.2) | - | - | - |
| 대중당(MP) | - | - | - | 2 (0.5) | - | 2 (0.4) |
| 총 계 | 400 | 100 | 500 | 400 | 100 | 500 |

출처: [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 (검색일: 2001. 4. 28);
BP 2005/02/25.

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당 총재였던 반얏이 총재직에서 물러남으로써 부총재인 아피셋이 당 운영을 총괄하게 되었으며, 대중당의 경우 당 총재인 아넥과 배후의 실질적 지도자인 썬난(Sanan Kachomprasart) 고문이 모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정당으로서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결과는 크게 세 가지 시사점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¹⁶⁾ 첫째, 이번 선거를 통하여 탁썬 총리를 중심으로 한 태국애국당의 대중융합적 정책공약은 다시 한 번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태국 국민들은 국가 운영의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공약보다는 태국애

16) Suchit Bunbongkarn 변담 (면담일: 2005. 2. 8).

국당이 제시한 단기간의 정책적 혜택을 선호하였으며, 반면 야당들은 태국애국당과의 뚜렷한 정책적 차별성이나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채 태국애국당의 인기에 영합한 정책공약들을 그대로 모방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기반을 잃게 되었다. 둘째, 태국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탁싌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탁싌 총리의 제1기 정부가 추진한 권력의 중앙집권화와 빠른 정책결정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야당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약화된 태국애국당의 일당 지배와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도 지속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셋째, 이번 선거결과를 통하여 태국 사회의 분열상이 보다 극렬하게 표출되었다는 점이다(*The Nation* 2005/02/08). 태국애국당은 지역적으로 남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형성하였으나, 남부지역의 의석은 2석을 제외하고 민주당으로 집중됨으로써 정당 간 지역적 분화가 심화되었다. 또한 이번 선거결과를 통하여 국민들의 정서는 태국애국당을 지지하는 다수와 야당을 지지하는 소수로 대립하게 됨으로써 이들 사이의 분열된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태국 정치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IV. 태국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주의

그렇다면 지금까지 태국의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선거과정의 제반 특징과 문제점들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었는가?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과정의 변화와 지속성은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우선 이번 선거는 이전의 다른 선거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자유롭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비록 남부 이슬람지역에서 주둔군 당국이 야간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당 및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전

달되기 어려웠던 점이나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일부 남부지역에서 선거 진행의 어려움을 겪은 점, 선거관리위원이나 정당참관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선거교육이 미진했던 점, 그리고 각급 단위 선거위원회에 대한 편파성 논란이 심화되었던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는 하였으나, 지난 2001년 선거와 비교하여 이번 선거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됨으로써 민주적인 선거질서와 문화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⁷⁾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이번 선거는 여야 합의에 의하여 선거관리 및 선거운동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이 보장됨으로써 그 어느 시기보다도 법·제도적으로 공정한 선거경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선거위원회나 정부기관에 대한 편파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됨으로써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법 보강의 정치적 의의를 무색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과거 선거에서 제기되었던 부정선거 시비나 암살과 폭력, 매도행위 등은 크게 줄어들었으나,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이나 선거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시비 등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선거위원회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야당이며, 이들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선거위원회의 편파적 행위에 대해 뚜렷한 정황이나 물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과정에서 선거위원회 및 정부기관의 공정성과 중립성 문제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학자와 시민

17)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ANFREL)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 (2005/02/08).

18) 선거에 참여한 야당 후보자들의 불만은 정부 재정을 동원한 관료 및 공무원들의 불법적인 선거운동 개입, 불법 선거운동이나 매도행위에 대한 경찰 및 선거위원회의 미온적 태도와 적발 의지 부족, TV와 언론 보도의 편파성 규제, 불법선거 신고 및 선거불만 접수에 따른 선거위원회의 후속조치 미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Surayut Nyomtharap, Chawas ChuenKalin 면담 (면담일: 2005. 2. 4); Pitiphong Thaiphotsri, Sakonphatom Meonjantchai, Surachai Deomkhunan 면담 (면담일: 2005. 2. 5).

단체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제기됨으로써 이에 대한 후속조치들이 요구되고 있다.

정당 및 후보자 수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대표행위와 금권선거, 부정·타락선거 등은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되고 있다. 선거기간 이전 이미 막대한 금품이 살포되고 광범위한 대표행위가 암암리에 진행되었다는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¹⁹⁾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들과 비교하여 비교적 깨끗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²⁰⁾ 오히려 정당 및 후보자 수준에서 이번 선거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은 일부 정당들이 선거 이전에 경제적 혜택이나 선거 이후의 공직 배분 등을 미끼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다른 정당의 후보들을 무분별하게 영입하는 행위였다. 이른바 ‘후보수집’(candidate collection)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행위는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민의와 상관없이 정치인들의 당적 변경과 정당의 이합집산을 유도함으로써 정치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Sombat 1993; Callahan et al. 1996: 376-92; Surin et al. 1997: 132-48). 실질적으로 태국애국당은 이번 선거가 치러지기 1년여 전부터 당선이 유력한 정치인과 후보자들을 영입하는데 노력하여 2003년 12월 말까지 최소 20여 명의 하원의원 및 후보자들이 야당으로부터 태국애국당으로 당적을

19) 방콕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64.9%는 이번 선거에서 돈을 주고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The Nation* 2005/02/06), 남부 지진해일 피해지역의 경우 선거일 60일 이전부터 각종 기부행위의 금지조항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 및 후보의 금품 제공이 구호활동을 방자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ANFREL)’ 보고회 참관 (참관일: 2005. 2. 8). 또한 선거기간 막바지에 이르러 정당간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막대한 금품 살포와 더불어 부정선거가 시도되었다는 신문 보도도 접할 수 있었다(*The Nation* 2005/02/04; *BP* 2005/02/06).

20) Suchit Bumbongkarn 면담 (면담일: 2005. 2. 8);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네트워크’ 외신 기자회견 성명서 (2005/02/08).

변경한 바 있으며, 그밖에도 각 정당들 사이의 당적 이탈과 이합집산이 초래되었다(BP 2003/12/23).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하여 과거 선거과정의 문제점들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지난 2001년 하원의원선거부터 태국애국당은 선거전문정당(electoral professional party)을 표방하여 다양한 마케팅 기술로 정당의 정책공약을 선전하고 정당의 당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등 그 동안 정책이나 선거공약은 없고 정당과 후보자만 존재하였던 태국의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새로운 기대감을 형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차상호 2001: 202; McCargo et al. 2005: 70-7).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태국애국당과 대다수 야당들의 정책공약은 거의 대부분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선심성 선거공약이거나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말 그대로의 공약(空約)에 불과하여 올바른 정책 대결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그나마 각 정당들은 정책경쟁보다는 유명정치인을 동원한 인기몰이나 네거티브 선거전략에 입각하여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호 비방과 선동적 구호로 선거운동을 일관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권자들의 선거행태와 의식 수준 또한 지난 2001년 선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물론 선거에 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나 투표참여율은 전체 투표율이 72.5%로 지난 선거보다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거의무제나 지방에서의 동원투표를 감안한다면 크게 향상된 수준은 아니다. 유권자들의 투표행태 또한 여전히 정책·정당 중심의 투표행태보다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가 지배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²¹⁾ 일면 선거과정에서 각 정당들의 대중영합적 정책공약은

21) 여론조사기관의 내부 자료를 열람해 본 결과,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은 아직도 정책·정당 중심보다 인물 중심의 투표행태가 2:3 혹은 1:2 정도로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Jiwamol Kanoksilp 면담 (면담일: 2005. 2. 9).

외형상 유권자들의 정책·정당 중심적 투표행태를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짐으로써 오히려 정당이나 정책공약 자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만을 고조시켰던 것이다. 물론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교육을 받은 젊은 유권자들과 지식인들은 태국애국당의 일당지배와 대중융합적 정책공약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등 일부 야당들을 지지하기도 하였으나, 야당들 또한 제대로 된 정책이나 선거공약을 개발하지 못하고 태국애국당과 유사한 정책공약만을 남발하거나 유명정치인을 내세운 홍보활동에만 전념함으로써 의식 있는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다. 반면 탁싨 총리와 태국애국당 정부는 집권 4년 동안 나름대로 그들의 정책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일반 국민들은 정책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탁싨 정부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였다는 측면에서 탁싨 총리의 개인적 리더십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표출하기도 하였다.²²⁾

대표행위나 부정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은 일부 도시지역에서 크게 향상된 반면, 빈민지역이나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도 지속적으로 대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태국에서의 투표행위는 정치적인 원칙이나 정당의 정책·강령에 따라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역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을 주고 개인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후보자에 대한 보답으로 투표를 행사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 존재하여 왔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번 선거기간 동안 대표행위나 금권선거는 수많은 추측과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증거 제시나 사실로 밝혀진 사례가 지난 선거 시기보다 감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전 선거들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위원회나 시민감시단체의 눈을 피해 대표행위를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들이 고안되었

22) Chaiwat Khamchoo 면담 (면담일: 2005. 1. 31).

으며, 이에 따라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대표행위나 금권선거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대표행위나 금권선거는 유권자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 도시지역보다는 주로 빈민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규모 또한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개인 단위가 아니라 직장 혹은 마을 단위로 전개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을 뿐이다.²³⁾

최근 선거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부 지역주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은 이번 선거를 통하여 더욱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선거결과는 남부지역에서 민주당이 전체 54개 의석 중 52석을 석권함으로써 민주당의 남부 지역화 현상이 지난 2001년 선거보다도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태국애국당은

<표 5> 태국의 2001년과 2005년 하원의원선거 지역별 의석 현황

| | 방콕 | | 중부 | | 북부 | | 동북부 | | 남부 | | 합 계 | | | | | |
|-------|------|------|------|------|------|------|------|------|------|------|------|------|----|--|-----|--|
| | 2001 | 2005 | 2001 | 2005 | 2001 | 2005 | 2001 | 2005 | 2001 | 2005 | 2001 | 2005 | | | | |
| 태국애국당 | 29 | 32 | 47 | 80 | 54 | 71 | 69 | 126 | 1 | 1 | 200 | 310 | | | | |
| 민주당 | 8 | 4 | 19 | 7 | 16 | 5 | 6 | 2 | 48 | 52 | 97 | 70 | | | | |
| 태국국가당 | - | 1 | 21 | 10 | 3 | - | 11 | 6 | - | 1 | 35 | 18 | | | | |
| 새희망당 | - | - | 3 | - | 1 | - | 19 | - | 5 | - | 28 | - | | | | |
| 국가개발당 | - | - | 4 | - | 2 | - | 16 | - | - | - | 22 | - | | | | |
| 정의자유당 | - | - | - | - | - | - | 14 | - | - | - | 14 | - | | | | |
| 인민당 | - | - | 1 | - | - | - | 1 | - | - | - | 2 | - | | | | |
| 태국조국당 | - | - | - | - | - | - | 1 | - | - | - | 1 | - | | | | |
| 사회행동당 | - | - | - | - | - | - | 1 | - | - | - | 1 | - | | | | |
| 대중당 | - | - | - | - | - | - | - | 2 | - | - | - | 2 | | | | |
| 의석수 | 37 | | 95 | | 97 | | 76 | | 138 | | 136 | | 54 | | 400 | |

출처: <http://www.nationmultimedia.com/election2005/index.php> (검색일: 2005. 2. 25).

23) Sakool Zuesongdham 면담 (면담일: 2005. 2. 8).

전국적으로 고른 의석 분포를 보이며 제1당이 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는 단지 1석만을 획득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라 의석수에 따른 정당 지형은 남부지역의 민주당과 다른 전체 지역의 태국애국당이 국가를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분할 현상은 앞으로 탁싨 총리의 제2기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민주당 역시 남부 지역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제2당이 되었으나, 남부지역에서 지나치게 강세를 보이다보니 다른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역설지역주의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태국의 선거과정은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정해진 선거법 절차와 일정 에 따라 선거과정이 진행되었으며, 지난 선거보다 선거자금 및 선거운동 의 구체적인 세부규정이 보강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선거를 보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제도의 실질적 운영과정에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정부기관이나 선거위원회의 편파성 논쟁 은 차치하더라도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 등 선거행위자들의 선거의식과 행태는 과거 선거과정에서 지적된 제반 문제점들이 지속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개선과 변화만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점들은 단기간 내에 개선될 사항은 아니며, 태국의 뿌리 깊은 정당구조나 정치적 관행, 그리고 선거문화 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V. 맺음말

한 국가의 선거과정을 통하여 표출되는 제반 특징과 문제점들은 어떤 특정 사건이나 시점을 계기로 급격하게 변화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마련이다. 비록 태국은 1933년 선거제도

의 도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3차례의 하원의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나, 보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제도에 입각하여 선거과정이 진행된 것은 1992년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그 동안 태국의 선거과정에서는 제도적 수준과 정당 및 후보자 수준, 유권자 수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파생되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의 본원적 기능과 원칙에 위배되는 비민주적 선거관행과 문화가 선거과정을 지배하여 왔다. 과거 선거과정에서 일반 국민들과 야당의 선거참여 및 경쟁을 가로막는 군부의 무력동원이나 관권 선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나, 금품과 향연 제공을 근간으로 한 대표행위나 금권선거의 폐단, 정당의 정책경쟁 부재와 이합집산,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과 후원자·추종자 관계에 기인하는 동원투표와 비합리적 투표행태 등은 태국의 과거 선거과정을 특징짓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사실상 지난 2005년 2월 6일 실시된 태국의 제23차 하원의원선거에서는 과거 태국의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요인들이 변화와 지속성을 나타내며 함께 표출되었다. 제도적인 수준에서 1997년 헌법개정 이후 강화된 선거위원회의 독립성과 그 실효성은 선거과정의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이러한 제도와 규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선거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편파성 논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당 및 후보자 수준에서 가시적인 대표행위나 금권선거 현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방법을 달리하여 보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경향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당 및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방식 역시 정책공약의 경쟁보다는 아직도 유권자들의 감성에 호소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선거를 위한 당적 변경이나 정당의 이합집산도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유권자 수준에서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도나 투표율은 점진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표출하고 있으나,

정당 간 정책대결이 미진한 가운데 지방을 근간으로 아직도 인물 중심적 투표행태가 폭넓게 지속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태국 선거과정의 문제점들은 선거의 주체이자 행위자인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의 몫이다. 태국은 아직도 선거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표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체제는 쉽게 공고화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지속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올바른 선거환경과 정치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모색되어야 한다. 태국의 선거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들이 선거과정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정치의식을 공유해야만 하며, 이를 통하여 보다 진일보한 선거과정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태국이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하여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주제어: 태국, 선거, 민주주의, 민주주의 공고화, 변화와 지속성.

참고문헌

- 윤진표. 2001. “태국의 정당정치.”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당정치』 pp. 67-126. 서울: 오름.
- 이동윤. 2001. “태국의 선거정치와 2001년 하원의원선거: 변화와 지속성.” 『연세학술논집』 34: 284-313.
- _____. 2003. “태국의 정당정치와 정당의 지역화 현상: 변화와 지속성.” 『국제지역연구』 7(2): 183-208.
- 이병도. 2000. “태국의 정치문화와 정당정치.” 『동남아연구』 9: 243-80.
- _____. 2004. “태국 정당의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14(1): 41-85.
- 차상호. 2001. “2001년 태국의 하원의원선거와 탁싌 정부.” 『동남아연구』 10: 187-216.
- Chaiwat Wongwatanasarn. 2000. *Tanakitkanmuang kab Kanpattirupkanmuang* (정치자금과 정치개혁). Bangkok: Samnakngan Kongtunsnapsanun Kanvichai.
- Kanok Wongtrangan. 1993. *Pak-kanmuangthai* (태국의 정당). Bangkok: Samnakphim Chulalongkorn Mahawithairai.
- Krungthep Turakij* (KT) 2004/08/30; 2005/01/14; 2005/01/31; 2005/02/03; 2005/02/04.
- Matichon Sudsapdah* (MS) 2005/02/04-10.
- Pran Phisitasresthakorn. 2003. *Thaksinomics II: Thaksin kab nayobai-sangkhom* (탁씨노믹스 II: 탁싌과 사회정책). Bangkok: Samnakphip Matichon.

- Sombat Chantornvong. 1993. *Luaktang wikrit: Panha lae thang ok* (위기의 선거: 문제와 해법). Bangkok: Samnakphim Kopfai.
- Suchit Bunbongkarn. 1988. *Kan-phattana thang kanmuang khong thai* (태국의 정치발전). Bangkok: Samnakphim Chulalongkorn Mahawithairai.
- Anusorn Limmanee. 1999. *Political Business Cycles in Thailand, 1979 ~ 1992: General Election and Currency in Circulation*. Bangkok: Institute of Asian Studies,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Arghiros, Daniel. 1995. *Political Structures and Strategies: A Study of Electoral Politics in Contemporary Rural Thailand*. Hull: Centre for South-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Hull.
- Bajunid, Omar Farouk. 1989. *The 1986 General Election in Thailand*. Kuala Lumpur: Pustaka Antara.
- Baker, Chris. 2005. "Pluto-Populism: Thaksin and Popular Politics." In Peter Warr (ed.). *Thailand Beyond the Crisis*. pp. 107-37.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Cruzon.
- Bangkok Post* (BP) 2003/04/28; 2003/12/03; 2004/04/26; 2004/10/07; 2004/12/09; 2005/01/06; 2005/01/07; 2005/01/14; 2005/01/15; 2005/01/16; 2005/01/19; 2005/01/20; 2005/01/21; 2005/01/23; 2005/01/27; 2005/01/30; 2002/02/02; 2005/02/03; 2005/02/06; 2005/02/09; 2005/02/25; 2005/02/26.
- Bidhya Bowornwathana. 2004. "Thaksin's Model of Government Reform: Prime Ministerialisation through 'a Country is My Company' Approach." paper presented at the 5th Thai-Korean Political Scientists' Dialogue, organized by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June 19-21): 7-36.

- Callahan, William A. 2000. *Pollwatching, Elections and Civil Society in Southeast Asia*. Burlington: Ashgate.
- _____ and Duncan McCargo. 1996. "Vote-Buying in Thailand's Northeast: The July 1995 General Election." *Asian Survey* 36(4): 376-92.
- Chai-anan Samudavanija. 1982. *The Thai Young Turk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ookiat Panaspornprasit. 2004. "Thailand: Politicized Thaksinization." *Southeast Asian Affairs 2004*. pp. 257-6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Dahl, Robert A. 1971.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Farrell, David M. 1997. *Comparative Electoral Systems*. New York: Prentice Hall.
- Harrop, Martin and William L. Miller. 1987. *Elections and Voters: A Comparative Introduction*. London: McMillan Press.
- [Http://www.nationmultimedia.com/election2005/index.php](http://www.nationmultimedia.com/election2005/index.php) (검색일: 2005. 2. 25).
- [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http://www.parliament.go.th/member44/numbermp.html) (검색일: 2001. 4. 28).
- Katz, Richard S. 1980. *A Theory of Parties and Electoral System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ing, Daniel E. and Jim LoGerfo. 1996. "Thailand: Toward Democratic Stability." *Journal of Democracy* 7(1): 102-17.
-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1996.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cGargo, Duncan and Ukrist Pathmanand. 2005. *The Thaksinization of Thailand*. Copenhagen: NIAS Press.
- Murashima, Eiji. 1987. "Local Elections and Leadership in Thailand: A Case Study of Nakhon Sawan Province." *The Developing Economics* 25(4): 363-84.
- Murry, David. 1996a. *Angels and Devils: Thai Politics from February 1991 to September 1992, A Struggle for Democracy?* Bangkok: White Orchid Press.
- _____. 1996b. "The 1995 National Elections in Thailand: A Step Backward for Democracy?" *Asian Survey* 36(4): 361-75.
- Mutebi, Alex M. 2003. "Thailand in 2002: Political Consolidation amid Economic Uncertainties." *Asian Survey* 43(1): 101-12.
- Nelson, Michel H. 1998. *Central Authority and Local Democratization in Thailand: A Case Study from Chachoengsao Province*. Bangkok: White Lotus Press.
- Norris, Pippa. 2004. *Electoral Engineering: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ckey, James. 2003.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Thai Political Party System." *Asian Survey* 43(4): 663-80.
- Paichart Siwaraksa, Chaowana Taimas, and Ratha Vayagool. 1997. *Thai Constitution in Brief*. Bangkok: Institute of Public Policy Studies.
-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2004. *Thaksin: The Business of Politics in Thailand*. Chiang Mai: Silkworm.
- Rae, Douglas W. 197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eaven: Yale University Press.

- Schedler, Andreas. 1998. "What is Democratic Consolidation?" *Journal of Democracy* 9(2): 91-107.
- Schmitter, Philippe C. and Terry Lynn Karl. 1993. "What Democracy Is ... and Is Not." In Larry Diamond and Marc F. Plattner (eds.), *The Global Resurgence of Democracy*. pp. 39-52.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uchit Bunbongkarn. 1996a. *State of the Nation: Thailan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_____. 1996b. "Elections and Democratization in Thailand." In R. H. Taylor (ed.), *The Politics of Elections in Southeast Asia*. pp. 184-20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urin Maisirikrod and Duncan McCargo. 1997. "Electoral Politics: Commercialisation and Exclusion." In Hewison Kevin (ed.), *Political Change in Thail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pp. 132-48. New York: Roudge.
- Thitinan Pongsudhirak. 2003. "Thailand: Democratic Authoritarianism." *Southeast Asian Affairs 2003*. pp. 277-90.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The Nation* 2003/10/11; 2005/01/04; 2005/01/29; 2005/01/30; 2005/01/31; 2005/02/01; 2005/02/02; 2005/02/04; 2005/02/05; 2005/02/06; 2005/02/08; 2005/02/12.

면담 자료

- Buranaj Samutharaks. 민주당 소속 제22대 하원의원, 제23차 하원의원선거 민주당 정당명부 26번 후보 (면담일: 2005. 2. 2).

- Chaiwat Khamchoo. 쾨라롱껐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5. 1. 31).
- Chawas ChuenKalin. 나껐빠툸 제5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4).
- Jiwamol Kanoksilp. *The Nation* 일간지 재경담당 편집자 (면담일: 2005. 2. 9).
- Kiat Sitheeamorn. 민주당 소속 제22대 하원의원, 제23차 하원의원선거 민주당 정당명부 16번 후보 (면담일: 2005. 2. 2).
- Pitiphong Thaiphotsri. 나껐빠툸 제3선거구 대중당 후보 (면담: 2005. 2. 5).
- Sakonphatorn Meonjantchai. 나껐빠툸 제3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5).
- Sakool Zuesongdham. 태국 선거감시단(Poll Watch) 집행위원장 (면담일: 2005. 2. 1~9).
- Somsri Hananuntasuk. 자유선거를 위한 아시아 네트워크(ANFREL: Asian Network for Free Elections) 코디네이터 (면담일: 2005. 2. 1~9).
- Suchit Bunbongkarn. 태국 헌법재판소 위원장, 쾨라롱껐대학교 정치학부 교수 (면담일: 2005. 2. 8).
- Surachai Deomkhunan. 나껐빠툸 제2선거구 태국국가당 후보 (면담일: 2005. 2. 5).
- Surayut Nyomtharap. 나껐빠툸 제1선거구 민주당 후보 (면담일: 2005. 2. 4).

Abstract

Change and Continuity of Electoral Process in Thailand: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2005 Parliamentary Election

Dong-Yoon Lee

(Research Fellow,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2005 parliamentary election in Thailand, and to analyze the change and continuity of the electoral problems that have been fingered at by many scholars and experts on the electoral politics in Thailand. This study analyzed the electoral process by three analysis levels: institution,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and the electorate. In so doing, it tried to research the impacts of the recent progress in the electoral politics in Thailand upon its democratic development. Analyzing the electoral process of the 2005 election, this study was able to find that it went through somewhat changes in a positive direction even though some problems in the process remained intact.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2005 parliamentary election in Thailand was held much more fairly. But, it was partly pointed out that the election commission was not hold a neutral and unbiased position. At the level of political party and candidate, corruptive behaviors such as vote-buying declined

significantly thanks to the heightened level of government and civil society's vigilance. But this study found that party-oriented or policy-oriented electoral campaigns were rare due to the fact that each party failed to provide a clear platform. At the electorate's level, the electorate in Thailand showed some sign of progress with respect to political indifference, low turnout rates, and candidate-centered voting behaviors. But this study also found evidence that many problems in the behaviors of the electorate still remained.

Key words: Thailand, election, democracy, democratic consolidation, change and continuity